광주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3차회의

일시:2010년 8월 31일 오전 11시 장소: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회 2010년 3차 회의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주정 여론매체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한편 제작 아이디어 등을 제안했다.

"영산강 사업 등 심층보도로 독자들 판단 도움줘야"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아동 성폭행 문제
경찰 탓만 하는 건 곤란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권역별 현안 토론회
기획시리즈 기대 커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시원한 스포츠면 편집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교수)

재고쌀 기사 시의적절
대안 제시 없어 아쉬워

문상필 (광주시의원·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보도자료 후속 취재해
광주일보 색깔 넣어야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올 여름 더위가 무척 심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기분 좋다. 2차회의 후 2개월 만의 회의인데 그동안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다. 광주일보 지면을 보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광주일보 창사 58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권역별 현안 토론회가 아직 진행 전인데 기대가 큰 기획인 만큼 빨리 진행시켜주면 좋겠다.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남지역도 영산강 수질개선 문제도 지역 내 큰 이슈인데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다. 광주일보에서도 겉 핥기식 기사가 아닌 심도있는 기획으로 독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달라. 수도권 규제 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 시 지역발전은 더욱 요원해 줄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누가 지역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지역발전은 영원히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을 주도하는 광주일보의 역할이 필요할 시기이다.

▲안재오(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8월10일 1면과 2면은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뤘다. 지자체의 경험과 인력 등이 어느정도 쌓여야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나 구청 등은 경험이 적어 실패하기도 한다. 광주일보의 적절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 선수촌 장소가 결정됐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매우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안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루고 그 외에는 큰 언급이 없다. 광주의 큰 행사이니만큼 광주일보에서 고정란을 만들어 홍보해줬으면 한다.

광주일보 스포츠 지면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다. 스포츠신문의 1면을 보는 것 같이 시원한 편집에 눈이 즐겁다.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스포츠 지면이라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지역 출신 선수들의 우승하는 모습을 많이 다뤄줘 서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이철갑(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전남지역의 쌀 문제와 관련해 이틀 연속 1면 톱기사로 썼는데 이슈되는 부분을 잘 꼬집어 줬다. 그런데 대안이 없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지적에만 그치지 말고 쌀 활용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해주었으면 좋겠다.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 소식에 1면에 반성문 기사를 썼다. 자신들이 언론의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일보도 민주당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 내용 보도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게 광주일보가 나서야 한다.

▲문상필(광주시의원·(사)광주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광주시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 등 7가지 현황 분석기사 매우 좋았다. 단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방향제시까지 해서 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

광주시의 모토가 창조도시 광주인데 누구 하나 창조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도시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도시에 대해 광주일보가 취재해서 광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기사를 써달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 광주일보의 색깔을 넣어 재작성해서 기사를 써달라. 일부 기사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쓴 기사도 있던데 광주일보의 취재가 들어간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달라.

▲조미옥(나주 봉황중학교 교사)=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비리 문제, 교수들의 뒷돈받는 문제, 나주시 교육청 공무원의 도박사건 등 이런 기사를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달 23일자 16면에 남도학숙의 혜택을 받아 교사가 된 분이 남도학숙에 매달 기부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따뜻한 소식을 자주 전해달라.

지난 6월24일자 레저 기사는 강진군 일대를 돌아봤는데 역시 광주일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지에서는 전하지 못하는 소식을 광주일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사를 보고 타 학교 교사들에게 추천하기도 하는 등 단순 관광 기사가 아닌 강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강운태 시장이 부임한 후 내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라는 슬로건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창조적인 모습을 시리즈 기사로 해달라. 문화와 관련된 것이나 생활 속 아이디어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을 취재해 접목하면 좋은 기사가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서로 상생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로 도우면 더 잘 살수 있는데 마인드의 문제 인 것 같다. 광주일보에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김현석=지난 6월30일자 1면 '광주시 29명 중 11명 관련업체 대표로 구성'이라는 기사는 바람직한 내용이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관행적인 일이지만 광주일보가 잘 짚어줬다. 심층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어서 7월28일자 기획기사로 다시 한번 짚어줘 좋았다. 한 번 쓴 기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 끝까지 추적하는 정신을 계속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아동 성폭생 문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광주일보도 자주 다뤄주는데 항상 경찰만 탓하고 있다. 무조건 경찰만 탓할 게 아니라 학교 시스템도 짚어줄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아동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광주일보가 노력해달라.

지난 7월31일 토요일자 5면은 박준영 지사의 부인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이 기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정치인 인터뷰도 아니고 부인을 굳이 한 판을 전부 사용하면서 쓸 필요가 있었나?

▲이묘숙(송은갤러리 관장)=광주·전남대해부 기획 시리즈를 잘 보고 있는 팬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문책성 기사보다 그 정책이 펼쳐지기 전에 짚어주는 기사라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 7월8일자 운암고가도로가 부식돼서 불안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 도로가 바로 수선됐다. 광주일보의 힘이라 생각해 매우 고마웠다.

성폭행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광주일보에서도 단순 보도가 아닌 성폭행 대처법이나 응대할 수 있는 방향의 기사로도 다뤄달라. 이에 다른 대안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광주일보에서 나서 달라.

8월6일자 사회면에 중고생들이 인터넷에서 담배를 쉽게 산다는 내용이었는데 깜짝 놀랐다. 너무 자세히 기사를 써서 잘못하다가는 이 기사를 통해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할까봐 놀랐다. 잘못된 블랙정보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 달라.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남도학숙 보은 기부' 신선
따뜻한 소식 전해달라

류동훈 (광주·전남행복발전소 행복문화 본부장)

시민들 창조적인 생활
시리즈로 다뤄 줬으면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광주·전남 대해부 기획
정책 이끌어내 바람직

이병우 (보해양조 홍보이사)

이슈 끌다 사라진 기사
후속보도 신경써 달라

▲이병우(보해양조 홍보이사)=신문마다 1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후 후속 심층보도 기사가 없다. 'LH지역경제 망치나' 기사도 매우 중요한데 다른 면에서 심층 보도 내용도 없고, 후속기사도 안나와 궁금하다. 후속 보도에 더 신경써달라. 칼럼은 방향을 제시해야하는데 광주일보의 칼럼은 좀 약하다. 칼럼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달라.

▲박순형=수도권 완화·광주은행 인수 문제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큰일 난다. 광주일보가 적극 나서 달라./정리=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셔틀버스 운행
• 당일셔틀 :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증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상 품	요 금
셔틀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20,000원
셔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20,000원
셔틀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25,000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증도(엘도라도리조트)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황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에프터라이프(15세)/악마를보았다(18세)	1관	라스트에어벤더(전체)/죽이고싶은(18세)
2관	곱돈슬럼버(12세)/죽이고싶은(18세)	2관	아저씨(18세)
3관	인셉션(12세)	3관	3관 상영영화없습니다.
4관	킬러스(15세)	4관	인셉션(12세)/피라냐(18세)
5관	라스트에어벤더(전체)/피라냐(18세)	5관	센츄리온(15세)/악마를보았다(18세)
6관	센츄리온(18세)/아저씨(18세)	6관	에프터라이프(15세)
7관	프레데터스(15세)/에브리바디올라잇(18세)	7관	곱돈슬럼버(12세)/에브리바디올라잇(18세)
8관	라스트에어벤더(전체)/프레데터스(15세)	6관	피라냐(18세)/아저씨(18세)
9관	아저씨(18세)	9관	킬러스(15세)
10관	물란:전사의 귀환(12세)	10관	10관 상영영화없습니다.

황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련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아저씨(18세)	최고급관
2관	에프터라이프(15세)	
3관	죽이고싶은(18세) 프레데터스(18세)	
4관	물란:전사의귀환(12세)	
5관	피라냐3D (18세)	
6관	악마를보았다(18세)	
7관	에브리바디올라잇(18세)	
8관	아저씨(18세)	
9관	킬러스(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인셉션(12세)/죽이고 싶은(18세)
2관	킬러스 (15세)
3관	에프터 라이프 (15세)
4관	라스트에어벤더(3D) (전체) 프레데터스(15세)
5관	에브리바디올라잇(18세) 악마를 보았다(18세)
6관	아저씨(18세)
7관	피라냐(3D),(디지털k) (18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